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경의선 월릉역 여객이동편의시설(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7월3일부터 사용개시, 노약자 이동편의 개선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의선 월릉역에 여객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를 완료하고 7월3(금) 새벽 첫차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의선 월릉역은 승강장으로 이동이 가능한 통로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와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열차 이용 시 불편함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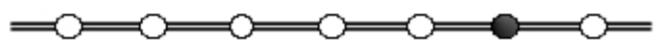
철도공단은 월릉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2014년 7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공사 중에는 임시승강장을 운용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본부 관계자는 “월릉역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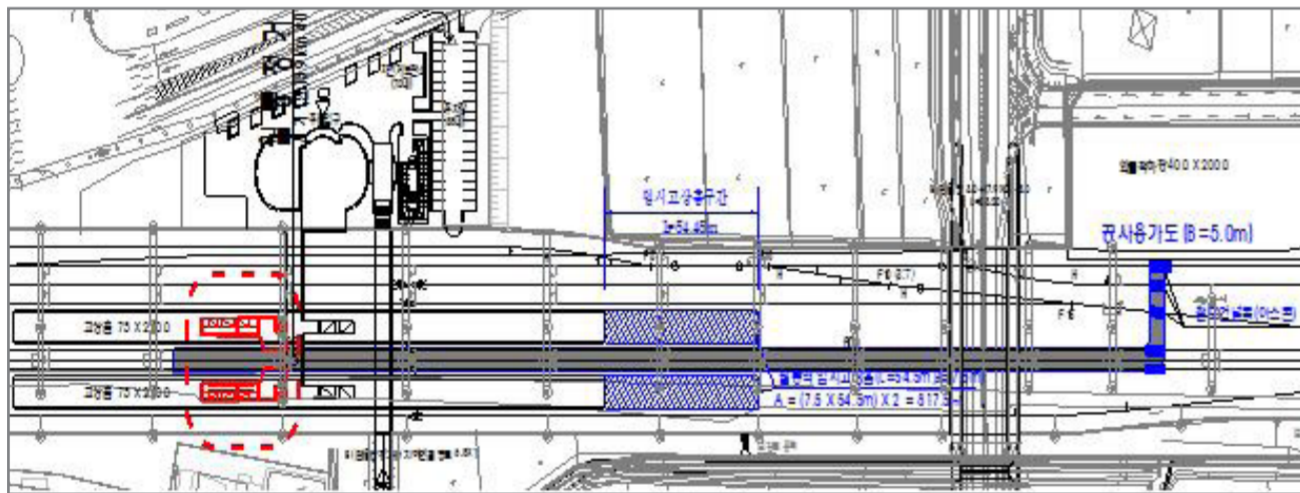
한편, 이번에 월릉역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경의선 23개역 전체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위치도]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릉 파주
서울역 ← → 문산



[공사개요도]



[편의시설 전경]



One Touch HSE-Q 시스템으로 무재해 달성한다.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대우건설) 현장에서 One Touch HSE-Q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현장의 잠재위험 및 아차사고 발굴활동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Check 할 수 있으며, 안전정보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SE-Q”는 건강, 안전, 환경, 품질(Health, Safety, Environment, Quality)을 의미하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나 품질, 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소나 부적합 요소들을 발견한 뒤 사진과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담당자에게 조치 요청되고 해당 내용이 공유되는 시스템으로 최근 현장의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실시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 모두가 잠재위험 및 아차사고 발굴,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에 솔선수범하는 자율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수도권본부와 대우건설은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현장의 One Touch HSE-Q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행으로 개통시까지 무재해 달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법무교육 실시

- 실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무수행 관련 비윤리 요소 사전 차단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7월2일(목) 부패예방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과 직무수행에 따른 준법외식 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변호사 박상웅)를 초빙하여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발주처인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숨은 부패유발요인 및 취약점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소개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윤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공직을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숨은 부패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적 소양 및 준법외식을 함양해 더욱 탄탄한 청렴문화 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공단,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

-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선언문, 인권경영 이행지침 마련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7월3일(금)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CEO의 경영철학인 인재제일과 상생경영을 바탕으로, 성별·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 노력과 더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을 도입하였다.

철도공단의 인권선언문은 인권전문가·협력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한 국민의 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담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인권선언문은 ▲인권기준 및 규범 존중,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 총 9개항으로 구성했고, 구체적으로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목) 인권담당 조직 및 자체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교육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의 인권선언문은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사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단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사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 이후에는 임직원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 강주현 대표를 초빙하여 ‘인권경영은 어렵지 않다.’ 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였다.

[붙임] 한국철도시설공단 인권선언문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함께 만든 인권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일동

‘일의 가치 Up, 불필요한 일 Down운동’ 으로 업무효율 향상!

- 철도공단, 행정소요일은 줄고 예산절감까지 일석이조 효과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추진한 ‘일의 가치 Up, 불필요한 일 Down운동’으로 공단 내 업무효율성 향상효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일의 가치 Up, 불필요한 일 Down운동’은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불필요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하여 지난 해 57건의 업무개선 제안을 도출했고, 실제 업무에 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철도공단은 지난 3일 그 동안의 개선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국유재산 사용료 공시송달 자체시행으로 행정소요일 및 비용 절감, ▲영세협력업체를 위한 소규모 경비지급 처리절차 간소화, ▲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효율적인 회의·보고시행을 위한 내부 절차 개선 등이 있다.

공시조달 자체시행은 공단이 국유 철도재산관리 행정청의 법적지위자로서, 미수채권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및 각 지역본부별 사옥게시판에 직접 공시송달 공고함으로써, 송달지연에 따른 채권멸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송달효력을 확보 후 압류 등 제압처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6억5천만원 상당의 채권소멸시효 중단 효과 및 송달관련비용 1천8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경비지급 소요일 단축을 위해 50만원 미만 경비 지급 시 결제단계를 줄여(처장급→부장급) 빠른 지급처리로 소규모 영세협력업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다이어트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활동은 지금까지의 업무관행을 버리고, 스마트하게 일 잘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일의 가치는 높이고 불필요한 일은 제거함으로써 대국민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신기술 제품 구매상담회’ 개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철도기술력 향상 -

경인지원실(실장 이명환)은 7월16일(목) 대전 본사에서 건축설비, 전철전력 및 전자통신 분야 2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철도분야 신기술제품(NEP)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 이번 구매상담회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 건축설비분야에서 주철제 상하수도관, 기어일체형 창틀
 - 전철전력분야의 배전반, (진력)감시경보장치
 - 전자통신분야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열차행선안내장치 등의 제품을 소개했다.

철도공단은 2014년에도 기반시설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인 73억원의 신기술제품(철도역사 내 열차행선 안내장치, 전동기제어반, 배전설비 등)을 구매했고, 올해에는 철도역사 설비외에도 전철전력 및 전자통신분야 자체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7%증가한 1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구매상담회,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발맞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철도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VE와 설계심사로 ‘원가는 down! 품질안전은 up!’

- 2015년 상반기 사업비 1,318억원 절감 및 철도 안전품질향상 성과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15년도 상반기 철도건설사업 설계 성과물에 대한 69건의 VE와 설계심사 활동으로 1,318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15년도 1년 동안 절감목표 금액인 1,756억원의 75.1%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외부 전문가 370명이 70회 이상의 회의에 참여하여 총 3천 200여건의 VE 개선제안 사항과 설계심사 보완사항을 발굴한 성과이다.

* 절감목표 산정 : 전년도 절감률 + (최근 3년간 절감률 최댓값 - 최솟값) × 10% 상향

구분	2014년 실적(억원)			2015년 목표(억원)		
	대상사업비	절감액	절감률	대상사업비	절감액	절감률
계	140,781	4,695	-	52,110	1,756	-
VE	68,600	2,801	4.08%	22,649	946	4.18%
설계심사	72,181	1,894	2.62%	29,461	810	2.75%

주요 개선사항 중 사업비 절감부분에서는 ▲ 현장별 특성을 감안해 정거장 구간 노반 상부 두께 최적화(30→20cm), ▲ 차량기지 시설 기능 등을 감안한 종합 관리동 규모(대회의실 및 옥상데크 면적 변경) 최적화, ▲ 정거장 화물추진 궤도자재 재활용, ▲ 시공성이 좋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전력선 자재변경 등의 내용과,

철도 품질안전 부분은 ▲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 시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 차량 검수시설 전기실 천정에 겨울철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추가 설치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철도공단은 적산 실무 자료집인 ‘설계검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실천 노하우’ 및 ‘14년도에 시행한 VE·설계심사 사례집’ 등을 발간 배포하여 그간 철도건설 사업의 선구자로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VE와 설계심사 시행으로 철도건설 원가절감 및 공단의 부채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간 목표 1,756억원의 사업비 절감 초과달성 및 철도건설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울산시, 울산도시공사와 상호협력 약속 -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는 7월2일(목) 17시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시장 김기현), 울산도시공사(사장 최광해)와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철도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통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며, KTX울산역 앞쪽 약7만㎡(국유철도부지 3만 7,663㎡, 울산도시공사부지 3만7,732㎡) 부지에 조성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지 점용허가 등을 협조하고 울산시는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지원협조, 울산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 및 부지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기관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철도이용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울산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고〉 부지현황도면



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용지보상’ 보다 쉬워진다!

- 철도공단, 현장마다 보상사무실을 설치하고 서류는 간소하게 개선 -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고, 보상받을 토지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용지관련 규정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할 서류 목록을 간소화(9매→3매)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각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했으나(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보상해야할 토지 인근 현장에 현장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철도공단 “용지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 규정 개정 ○ 현장 용지보상사무소 운영 근거 신설(제17조 제2항 신설) 	<p>제17조(민원의 해소)</p> <p>① 생략</p> <p>② 지역본부장은 민원인의 편의 및 용지매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용지보상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계약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매계약서 (3장) - 실농보상계약서 (2장) -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2장) -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매계약서 (1장) - 실농보상계약서 삭제(청구서로 대체) - 물건이전보상계약서(1장) -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1장)

○ 현장 용지보상사무소 운영 사례



서해선 복선전철사업(홍성군)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보령시)

철도시설공단, 대전시 동구 '원동지하차도(경부선 횡단)' 개통

-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상습 교통체증 해소 기대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원동지하차도(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일대)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4차선 전체를 개통했다고 7일 밝혔다.

원동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공사비 155억원을 투입하여 경부선 철도 하부를 횡단하는 총길이 455m(경부선 하부 79m, 연결도로 376m)의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을 추진했다.

철도공단은 대전도심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대전시 관내 철도노선을 횡단하는 지하차도 14개소와 고가차도 1개소 등 총15개소(신설 9개소, 개량6개소)에 대해 신설·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올해말 완공 : 14개소, 내년 3월 완공 : 1개소 예정)는 철도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남고가, 성남지하차도, 효동1지하차도는 기개통되어 사용 중

본부 관계자는 “원동지하차도 완전개통으로 앞서 개통한 한남·성남·효동1 지하차도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사라지고 또한 정체가 잦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동지하차도 위치]



구분	시설명	계획	개통예정
1	한남고가차도 (대전시 동구 오정동 172-4 일원)	고가차도 개량 (2차선⇒4차선) - 폭=20m / - 총길이=620m (고가차도 170m, 연결도로 430m)	'11.03월(완료)
2	홍도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150-6 일원)	신설 (육교⇒지하차도) - 폭=3m / - 총길이=176 (지하차도 26m, 연결도로 150m) - 집수정1개소	'15.08월
3	홍도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20-4 일원)	개량 (2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858m (지하차도 37m, 연결도로 821m) - 집수정1개소	'15.10월
4	홍도2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171-4 일원)	신설 (육교⇒지하차도) - 폭=3m - 총길이=182m (지하차도 25m, 연결도로 157m) - 집수정1개소	'15.08월
5	성남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성남동 223-17 일원)	신설 - 폭=22m - 총길이=481m (지하차도 112m, 연결도로 369m) - 집수정1개소	'15.05월(완료)
6	삼성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삼성동 441-1 일원)	개량 (4차선⇒6차선) - 폭=31m - 총길이=400m (지하차도 44m, 연결도로 356m) - 집수정1개소	'15.08월
7	정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정동 4-47 일원)	신설 (보도⇒4차선) - 폭=25m - 총길이=484m (지하차도 140m, 연결도로 344m) - 집수정1개소	'15.12월
8	원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원동 406-2 일원)	개량 (4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455m (지하차도 79m, 연결도로 376m) - 집수정1개소	'15.07월(완료)
9	신흥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신흥동 189-30 일원)	신설 (건널목⇒4차선) - 폭=24m - 총길이=387m (지하차도 51m, 연결도로 336m) - 집수정1개소	'15.11월
10	인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인동 347-1 일원)	개량 (4차선⇒6차선) - 폭=33m - 총길이=392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349m) - 집수정1개소	'15.12월
11	효동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효동 255-4 일원)	개량 (4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450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407m) - 집수정1개소	'15.05월(완료)
12	효동2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효동 236-7 일원)	신설 (4차선) - 폭=23m - 총길이=277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234m) - 집수정1개소	'15.10월
13	판암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707-4 일원)	신설 (건널목⇒2차선) - 폭=16m - 총길이=33m	'15.08월
14	판암2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373-25 일원)	신설 (2차선) - 폭=17m - 총길이=164m (지하차도 51m, 연결도로 113m)	'15.11월
15	판암3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158-1 일원)	신설 (4차선) - 폭=24m - 총길이=30m	'16.03월

철도시설공단, 태풍 등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

- 태풍, 장마전선 복상에 따라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9호 태풍 '찬홈'과 제11호 태풍 '낭가'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7월7일(화)부터 집중호우에 취약한 선로변 절개지와 흠마이, 지하굴착 및 하천제방 공사현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활동을 시행하고, 이번 태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8일부터는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대전 본사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운행선, 도로 및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등과 철도건설현장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 응급조치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홍보하도록 각 지역 공사현장에 전달했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현장 및 선로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공사장 근처에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마시다
- 철도건설현장의 전차선로는 전기가 공급되면 특고압 전기가 흘러 매우 위험하오니 접근금지
- 토공 굴착면의 붕괴, 토석 낙하 위험장소에 이동금지
- 강풍 시 건물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선행강우로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출입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철도사업규모는 2배 늘고, 안전사고는 1/10로 줄어

- 최근10년 기준 철도공단 재해율 크게 감소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철도사업비는 2005년 3조5천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5년 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수도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안전사고 환산재해율은 2005년 0.275%에서 2014년 0.087%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환산재해율은 0.008%로, 2005년 상반기 재해율0.102%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bullet \text{ 환산재해율} = \frac{\text{환산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quad (\text{환산재해자수} = \text{사망자} \times 5 + \text{부상자})$$

철도공단이 지난 10년간 철도건설현장의 사고유형을 자체 분석한 결과, 철도현장의 각 분야별(노반·건축·전력·레도·신호)로 추락, 감전, 끼임 등 사고발생 유형이 다르고, 완공 직전(공정율80~100%) 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신규 근로자가 재해자의 60%를 차지했고,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재해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사고유형 분석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 및 발생시기별로, 안전관리자,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신규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한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취약현장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신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모 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이 많은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맡기는 등 현장에서 특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교재를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현장별로 통역사를 통해 특별 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공사현장 분야별로 취약사고유형을 안내하는 현수막, 포스터 및 스티커를 현장에 집중 배포하고, 사고 취약시기에 사고예방 특별 강조기간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단 임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KR재난알리미 앱(APP)'을 자체 개발하여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태풍, 폭염 등의 기상변화와 사고 발생 등 현장의 위험요인 발생 시 앱(APP)을 통해 건설현장-공단-국토부간 One-Stop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초동대처 및 복구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기상상황, 계절특성 등 상황변화에 따른 안전예방 지침을 현장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강영일 이사는 “현장 맞춤형 예방적 안전관리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철도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2020년 공단 목표 재해율 0.05%를 앞당겨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인도차이나반도 철도연결사업' 첫 시동!

- 라오스~베트남 철도연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주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과 베트남 최대 중화학 공업단지인 봉앙(Vung Ang)항을 잇는 총연장 약 500km의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수주한 이번 용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 무상지원을 위해 발주한 사업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의 기본계획수립, ▲ 철도연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서 작성 지원, ▲ 양국 철도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 사업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기술 자문이며, 2015년7월부터 30개월간 수행할 계획이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접점이면서, 중국과 인도 문화권의 중간에 위치한 인도차이나반도의 경제 중심 허브로서, 특히,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한 베트남은 작년 10월 한국과 금융협력 MOU 체결하고, 이번 사업 뿐 아니라 호치민~나짱 고속철 사업, 호치민 도시철도 5호선 사업 등 다양한 철도 사업을 한국과 공동협력 추진 준비 중에 있다.

철도공단 오재욱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중국을 넘어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 한국 철도기술을 전수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후속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베트남 봉앙(Vung Ang) 총연장 약500km의 철도연결 사업



원주~강릉 철도건설 전기분야 공사 개요

철도공단 호남본부, 건설현장 '하절기 품질관리' 점검 강화!

- 철도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 생산 공장 일체 점검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7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관내 철도건설현장에 납품하는 31개 레미콘 생산 공장에 대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일체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생산 관련 골재원과 배합설계 현황, ▲ 원재료 저장설비와 품질관리 실태, ▲ 현장 제품 확인 시험(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혼합물 배출온도 측정) 등으로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철도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호남본부는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공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의 레미콘 사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 안전교육시행

- 각 나라 언어로 된 교육자료와 통역사를 통해 교육효과 높여 -



교육사진

교육자료를 마련했으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철도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강원본부 관내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현황(6월)

국적별	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인원	149명	75명	24명	17명	16명	13명	4명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전기분야 공사 본격 추진!

- 전체 공정을 42%.. 2017년말 개통으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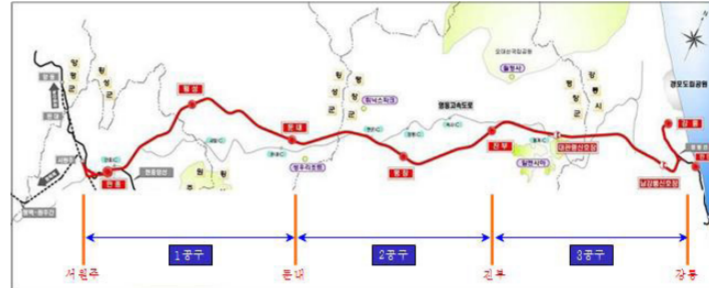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6월말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중 전기분야(전철전력, 전차선로, 전력설비) 공사계약이 모두 체결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전기분야 공사에 총 3천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2만 5,000V)를 공급하기 위한 전철전원, 전차선로, 전력설비를 2017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고품질의 편리한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현재 선행 공법인 노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궤도공사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는 등 전체 공정율이 42%에 이르고 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전기설비 신설
- 사업기간 : 2015. 6월 ~ 2018. 3월
- 총사업비 : 3,240억원

□ 계약현황

계약금액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철전원	3,029	16,214	8,066
	전차선	21,685	16,285	14,087
	전력	10,627	9,385	15,038

경부선 물금역과 원동역에 여객이동편의시설 설치 추진

- 철도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수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경부선 물금역, 원동역에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역별 3대씩)과 철도이용객이 역구내 이동 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캐노피 설치 공사를 7월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물금역과 원동역은 철도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고객의 불편함이 있었다.

철도공단은 물금역과 원동역에 각 3대씩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각 역구내의 이동통로와 역 맞이방 사이에 빗물을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물금역과 원동역의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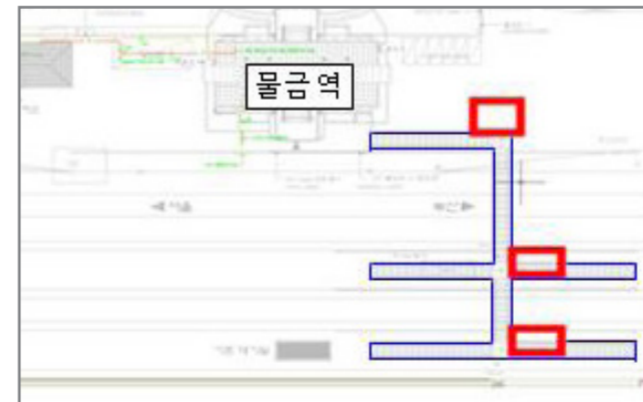
공사 현황 (물금의 1개역사 승강설비 공사)

□ 공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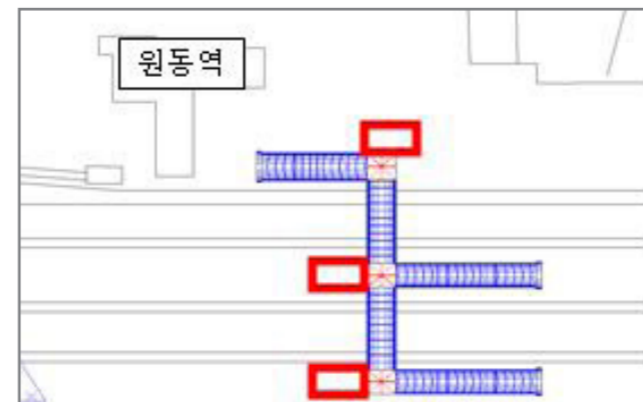
- 건 명 : 경부선 물금역의 1개역사 승강장 승강설비 설치 기타공사
- 계약자 : 보람종합건설(주) 대표 이진수
- 계약금액 : 1,567백만원 (1차 : 1,103백만원)
- 공사기간 : '15.6.25 ~ '16.04.19 (1차 : '15.6.25 ~ '15.12.25)
- 공사내용 : 엘리베이터(E/V) 6대, 캐노피 설치 등
 - 물금역 : E/V 3대, 캐노피 설치, 기존 연결통로 계단 철거 등
 - 원동역 : E/V 3대, 캐노피 설치, 흠맞이방 1개소 철거·설치 등

□ 배 치 도

- 물금역 : 경부선 /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



○ 원동역 : 경부선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13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개통대비 전구간 점검시행

- 2016년 2월 개통 이상무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2016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7월13일 개통대비 6개월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회 점검은 공단,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철도사업자 합동으로 개통일정 준수여부, 시공상태 적정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노반 등 10개 분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8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개통 추진예정이다.

신분당 연장선인 정자~광교간 복선전철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서 수원시 이의동까지 12.8km를 신설하는 민간 투자사업(BTO)으로 2011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을 9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운전 시스템을 감안하여 지난 2014년 11월부터 차량을 투입하여 8개월째 공중별 시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정자~광교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지구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용인 및 수원 서북부 지역과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도권본부 김영하 기자〉

충청본부 감성터치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전 직원은 7월7일(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NBC 꽃예술아카데미 흥은주원장을 초청하여 꽃과 사람사이의 감성터치란 주제로 마음을 힐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교육은 직장에서의 쌓인 스트레스 해소 및 일·가정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기위한 지속적인 감성개발의 일환으로 꽃꽂이에 대한 설명과 실습으로 진행 되었으며, 직장인들의 생활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은 물론 자기계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앞으로 사내구성원들이 업무향상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내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며 조직문화로 정착할 때 까지 다양한 교육과 행사들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본부 유영달 기자〉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경의선 삼성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의선 삼성지하차도 공사"를 7월 14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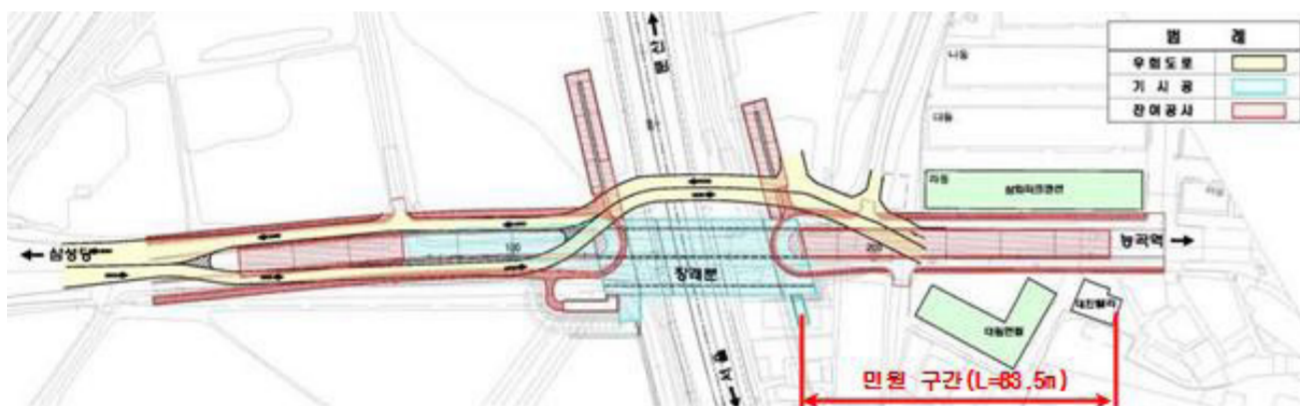
삼성지하차도는 삼성건널목 입체화시설로 추진 중인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L=280m, B=21.4m로 계획되었으나, 인접주택 안전성 확보 및 고양시 뉴타운사업 병행 요구에 따른 민원으로 장기간 공사중지 상태였다.

그러나 삼성건널목 준치 장기화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련 규정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시설계획 변경(통과높이 4.3m, 구배조정 15%)을 통해 인접건물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고양시와 협의하고 7월 1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면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광명수 기자〉

〈삼성지하차도 현황〉



찾아가는 공감콘서트 강원본부에서 시작되다

제12회 찾아가는 공감콘서트가 지역본부 최초로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공감콘서트는 오후의 데이트 사내방송 청취 및 다과를 즐긴 후에 정식 무대로 1부는 우쿨렐레 연주(김경탁차장, 이성연차장, 김정아과장, 임영주과장) 감상과 2부는 시설장비사무소에 근무하는 홍성희 시인의 "시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강원본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홈카페 마스터(김정보대리)가 내려주는 향기로운 커피를 음미하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참석한 직원들은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나누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만남의 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의 일을 뒤로 미뤄놓고 우리 강원본부를 찾아와 훌륭한 연주 및 시에 대한 안목을 높여준 행사 진행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원본부 조득호 기자〉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청렴 및 민원처리교육 실시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7월 9일 7층 회의실에서 건설기술처 직원 3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및 민원처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공직자의 몸가짐'이라는 주제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실천했던 '몸가짐의 절제를 통한 청렴한 자세'를 통한 공단직원으로서의 청렴 실천방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충청본부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처리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고충민원 발생현황 및 대책', '악성 및 고질민원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의 민원처리 능력 향상과 민원인에 대한 진절도 향상에 대하여는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민원해결에 솔선수범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 나선 손병두 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청렴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앞날을 희생하는 근시안적 생각을 버리고, 청렴에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본부 안세한 기자〉

주요기사(2015. 7. 1~7. 20)

2015. 7. 2. (목)

-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철도건설(충청투데이 20)
- 젊은 바람 이끄는 KR청년중역(중도 05)
- 철도시설공 직원 46명 채용(대전 09)
- 롯데쇼핑, 복합환승센터 제안서 제출 임박(경상 02)
- 도-3개 지자체 GTX 사업비 부담 '줄다리기'(경기 11)
- "원주~강릉철도 조속 완공해야"(강원도민 04)
- "충청선 철도 건설 나서야"(대전 04)
- 개발? 보존?... 폐선철도 부지 갈등(문화 30)
- KTX 호남선 내달부터 증편 주중 4회 늘려 하루 48회 운행(동아 12)
- 30대 그룹 계열사 절반,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한국경제 05)
- 공무원 女超시대(매일경제 01)
- 中, 560조원 이어... 또 철도 등 '4대 프로젝트' 문 풍기(조선 B01)
- 'KTX 수원역 출발' 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경기 23A)
- 호남선 KTX 증차 반값지만 요금도 내려야(광주 23)
- 철도시설공, 공채합격 46명 신규임용(파이낸셜뉴스)
-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본격 시작(연합뉴스)
- 공단, KTX 광주송정역사 아용객 편의시설 대폭 개선(아주경제)

2015. 07. 03. (금)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급물살(경상일보2)
- 'KTX 울산역 환승센터' 건립 본격화(부산일보12)
- "폐선 상업개발 걸러낼 정치 마련하라" (국제신문1)
- 경전철 면목선 · 동북선 건설 확정(문화일보14)
- 동아정론 '임금피크제' (동아일보28)
- 관공서公示에 이름 주소 노출 신드(동아일보14)
- KTX울산역 복합환승사업 개발 MOU(NEWS 8)
- 철도공단, 경의선 율령역에 여객 이동편의시설 설치(아시아투데이 외 3)
-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 전철 전기공사 착수(news1)

2015. 07. 06. (일)

-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본격화(경남신문8,서울경제33)
- 철도시설공 1318억 절감효과(대전일보9,중도일보5)
- 구미 원평철도고 · 지하차도 전면 개통(대구일보10)
- 경기 성남부도민 KTX 이용 편해진다(인천일보01(경기판))
-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부활기치 탄력(경기일보4)
- 여주~원주 전철사업 차질 우려(강원도민일보2)
- 창조경제 거점-고속도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메(동아일보8)
- [상생]고용 새모임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노사합의 최우선(매일경제10)
- 고기관 '경기부양 2조' 부채평가서 제외(동아일보B04)
- 세입 추경 논란 정부가 자초(국민일보15)
- 93개국 속한 거대한 땅... 잠재력 상상 초월(조선일보D03,D06,D07)
- 부산~단둥 잇는 고속철, AIB 투자 끌어들이자(중앙일보4)
- 철도공단, VE와 설계심사로 사업비 1318억 절감(아시아뉴스통신 외 3개)
- 철도시설공, '인권경영' 선언(파이낸셜뉴스 외 5개)
- 철도시설공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교육 실시(국제뉴스 외 1개)
- 친반 팽방 KTX 오송역 명칭 변경 논쟁 다시 불붙나(중도일보)
- 정부, 행복주택 복합개발 '행복타운' 조성 추진(연합뉴스)
- KTX 고장으로 오송역 지연 출발(NEWS)

2015. 07. 07. (화)

- 철도공단, 남녀 · 학력 차이 없앤 '인권경영'(아시아경제17)
- 철도공 "상반기에만 5조847억 집행" (한국경제27)
- 폐선부지 분리 개발 제3의 길 찾는다(국제신문1,2)
- 최경환 부총리 'KTX서대구역사 사업예산' 광역철도에 포함(영남일보4)
- 정부 추경안 '원주~강릉 철도사업비' 3,200억 추가 반영(강원일보3)
- 국토부, 중남미 수주 확대 지원사격(파이낸셜뉴스23)
- 호남선 'KTX 2단계' 예산 600억 불용 위기(무등일보1)
- 공기업 임원 평가제,씩 바꾼다(아시아경제8)
- 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내일 총파업(강원일보5)
- 공공기관, 임금 덜 올려 신입사원 더 뽑는다(동아일보B01)
- 빨라진 임금 교섭... 기업 44%가 상반기에 이미 끝내(조선일보14)
- 블라디보스토크~베를린... '민2천억' '거리' 공동체 꿈 엮는다(매일신문15)
- 철도공단 강원본부,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연합뉴스)
- 철도시설공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 KOR소년단 부식선물세트 전달식(충남일보 외 1)
- 철도시설공 1318억 절감효과(대전일보)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본격화(경남신문)
- 구미시 80년 경과된 원평철도고 및 지하차도 전면 개통(아시아투데이)
-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 지중화 1차 완료(아시아경제 외 2)
- [뉴스1초대석]공공임대 · 행복주택 · 뉴스테이 미래 임대차 시장의 틀(news1)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면했지만 반대로 급여(연합뉴스)

2015. 07. 08. (수)

- 대전 원동지하차도 전면 개통(대전일보5,중도일보7,충청투데이2)
- KTX동해선 내달부터 주중 4회 증편(경북일보1)
- KTX 서울 ~ 부산 5분 단축(대전일보5)
- 도의회, 동서고속철 관철 '1인 시위'(강원도민일보2)
-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 계류(강원일보2)
- 유라시아 뉴실크로드를 선점하라(동아일보1, 8)
- 서울~인천~수원까지 "쭉쭉" 사통팔달 철도교통 요지 안전(중부일보19)
- 민간 · 공공 건설수주 양극화 심화(세계일보19)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수직상승(문화일보17)
- 공기업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절반(세계일보12)
- "청년 일자리 창출 '마법' 아니다"... 우려 커지는 임금피크제(세계일보18)
- 지방 교육 · 공공기관 재정 정보 '한눈에' (서울신문12)
- "공공기관 · 기업들 기왕이면 국내서 휴가를"(강원일보9)
- [사설]호남 KTX 2단계 사업도 결국 늦춰지는가(무등일보19)
- 철도공단, 태풍 폭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건설경제 외 2)
-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근로자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전국매일신문)

- 철로변 주변 저소득아동에 부식세트 선물(금강일보)
- 경부고속철 대전 · 대구 전용선로 개통, 호남선 · 동해선 KTX 증편(경향신문)
- 철도시설공단, 대전 '원동지하차도' 개통(머니투데이 외 12)
- 日신칸센이 마련한 방화 등 방지 대책은?(경향신문)
- 호남고속철도 개통 100일(연합뉴스)

2015. 07. 09. (목)

- 대전 동구 원동지하차도 4차선 개통(충청투데이6)
- "호남선 KTX, 증편 환영" (전남일보6)
- 대전역 주변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국민일보12A)
- 고속철도 연계 교통망 구축 · 관광상품 개발 효과 극대화 나서야(광주일보7)
- 관광 중심 지역발전 긍정 시그널(무등일보1)
- 올 관급공사 '31조6000억' SOC 많아 대형사 독식 우려(국민일보14)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현상, 여기는 두만강 ... 그 강은 북으로 또 남으로 흘렀다(중앙일보7)
- 대륙으로 뻗은 9288km... 유럽시간 맞춰 뛰는 '물류 심장' (동아일보10)
- 韓流 바람 거센 몽골, 유라시아 물류 전진기지(한국경제38)
- [사설]강원도 현안사업 더 이상 방치 안 돼(강원도민일보7)
- [사설]개통 100일 호남KTX 역세권 개발 서둘러야(광주일보23)
-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다이어트 통해 스마트하게 일 하는 조직으로 우뚝(아주경제 외 2)
- 대전 동구 원동지하차도 4차선 개통(충청투데이,대전일보)
- 철도공단,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국토일보)
-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가저축제+휴가보장제 '인식' 도 가능(KSPnews)

2015. 07. 10. (금)

- 철도공단 올 사업비의 62.8% 상반기 집행(서울신문11)
- 대전시 원동지하차도 내일 개통(충청투데이2)
- 현대로템, 남미시장 개척 나선다(한국경제14,경남신문10,아시아경제10 외 2)
- 지하철 8호선 연장 별산선 설계 용역... 2017년 착공(한국일보26, 경기일보3)
- 대통령 공약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또 외면(전남일보2)
- 사업비 5천억 다이어트... 의정부~군포 '정신호'(중부일보1)
- "GTX 출발지 파주로" ...시민들 서명운동(한겨레12)
- 中-러 잇는 지름길... 자원까지 풍부... 해외자본 눈독(동아일보8)
- 34조 추가 투입될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원 "대폭 정리" (동아일보1, 10)
- "거미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듯 중국 가는 길 예측해 실의 취해야" (중앙일보5)
- 정치에 휘둘린 최저임금... 정부, 기대만 높이고 뒤로 빠져(중앙일보14)
- 남 · 북 · 러 3각협력 궤도에 올릴 대륙 횡단철(한국경제34)
- [사설]개통 100일 호남고속철 안착은 했지만(광남일보19)
- [사설]KTX 호남선 개통 효과 더욱 확대해야(무등일보19)
- [기자수첩]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힘 모아달라"(충청투데이18)
- 대전 '원동지하차도' ... 착공 6년 만에 4차선 확장 개통(뉴스1)
-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지 임대 검토(연합뉴스)
- [단독]국토부, 작년 추경 3079억 쓰지도 못했다... 올해도 1.4조 배정(머니투데이)

2015. 7. 13. (일)

- GTX B · C 노선 건설 '청신호'(세계 10)
- 동해남부선 옛 철길 시민매일 등 오늘 시민단체 활용방안 토론회(국제 08)
- 호남고속철 개통 100일 ... 오송역 이용객 22.1% 증가(충청투데이 01)
- 전라선 KTX 에어컨 고장 '찜통운행'(전북 04)
- 포항 KTX 개통 100일...우려 딛고 장미빛 신호(대구 09)
- [사설]오송역 용역으로 국토 X축철도망 구축 앞당겨야(충청투데이 21)
- [사설]경원선 복원, 경색된 남북관계 일대 전환점 돼야(강원 07)
- [사설]사업 착공 10년...4.7km 완성시켰다(전남 19)
- 막으려는 여야 추경전쟁 '세수팽크' 책임론 공방(대구 04)
- 밀어붙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노동자에 부당 압박 첫 확인(경향 12)
- 홍용표 "남북 철길 연결됐으면... 경원선 복원이 출발점"(세계일보, NEWS)

2015. 07. 14. (화)

- 10년간 철도사업 100% 성장 재해율은 10분의 1로 줄었다(파이낸셜뉴스26)
- 철도공단 라오스~베트남 철도 타당성용역 수주(파이낸셜뉴스24,중도일보5)
- 철도사업 규모2배 안전사고 10분의 1(대전일보9)
- 유라시아 철도 대장정 주민 관심(강원도민일보9)
- 확박한 현안 도민 '거리로' (강원도민일보1, 강원일보2)
- 분당선 북정역서 열차 고장, 서울 방면 40분간 중단(매일경제)
- 야, SOC 식감 ... 메르스 · 민생 증액(내일신문3)
- 초고속열차 속도경쟁... 국내 600km/h 기술 개발중(서울신문25)
- 한반 앞선 녹색에너지 투자 ... 공기업이 똘대(매일경제B01)
- 철도시설공단, 라오스-베트남 철도연결사업 조사용역 수주(아시아경제 외 21)
- 10년전 보다 철도사업규모 2배 커졌다...안전사고는 90% ↓(연합뉴스 외 14)
-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YTN)
-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지 임대 검토(아주경제)
- 강길부 의원, "온양읍 동해남부선 횡단도로 개설, 우선 해결해야"(news1)
- 野, SOC 예산 삭감 예고 도내 숙원사업 차질 우려(경기일보)
- "해외건설 수주 1조시대, 신시장 · 신상품이 이끈다"(news1)

2015. 07. 15. (수)

- 철도사업 용지보상 쉽게 개선(대전일보9,중도일보5)
- 국회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빨리 결정하라" (무등일보4,광주일보7)
- 강원 지방의원 "대통령 철도공약 이행" 시위(한겨레14B)
-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 최대 난제 풀렸다(부산일보12)
- "대륙~소사 복선전철 내 행정산성역 신설해야"(경기일보11)
- 천안 서북구 숙원사업 해결 싹싹(중도일보16A)
- 대구시 광역철도 건설 전담팀 신설(매일신문5)
- 성주 대형 SOC사업 착착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매일신문01B)
- 갈자자 정책에 우는 공기업 '빛내 투자할 편'(파이낸셜뉴스2)
-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7214명 정규직 전환(서울신문11)
- "개성-신의주 복선 땅까지... 통일의 열차는 달리고 있다" (동아일보8)
-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서울신문11, 한국경제1,4)
- [기고] 생활형 SOC투자로 추경효과 극대화해야(매일경제34)

- 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 쉬워진다(연합뉴스 외 22)
- 철도공단-육군공병학교 자매결연(news1 외 5)
- 도심 지하화 순조롭게-투(MBC강원영동)
- 숲길공원과 산책로로 새롭게 태어나는 옛 철도길(조선일보)

2015. 07. 16. (목)

-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올해 착공(광남일보1,무등일보1,전남일보1,광주일보1)
- 철도 역사 주변 개발 밀그림 그린다(강원일보19)
- 철도 조기 건설 촉구 1인 시위(강원일보15)
- "철도 · 삭도로 경제 살려야" 들끓는 강원 민심(서울신문11,강원도민일보1)
- "정부 강원현안 뒷짐" 반발 조짐(강원도민일보1)
- 보성-임성철도 500억 · 동부간선도 250억... 여야 지역 챙기기 열안(매일경제8)
- 추경 SOC예산 깎자던 野의 '두얼굴'(매일경제1)
- 경제논리에 핵심사업 제자리... 올림픽 예산도 '인색' (강원도민일보3)
- 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본격 시행(서울경제31)
- 부채 상위 공기업 실제이자 2배 더 많아(세계일보8)
- 기재부 "공공 문화시설로 휴가 오세요" (동아일보2)
- 서대문 고가 철거 시작(세계일보,경향신문10)
- 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용지보상' 쉬워진다(국토일보,아주경제)
- 비리 공공기관 계약업무 조달청이 대행...공기업 8곳(연합뉴스)
- 대륙으로 가는 철길 열리나-北 "경제 동맥" 철도망(연합미디어스)
- 대륙으로 가는 철길 열리나-시급한 北 철도 현대화(연합미디어스)
- 대륙으로 가는 철길 열리나-남북 열선 TKR(연합미디어스)
- 남미대륙 횡단철도 건설 예정대로 추진되나(연합뉴스)

2015. 07. 17. (금)

- 전국 폐 철길 820km 시민 품으로(국민일보15,서울경제29,매일경제27,충청투데이2)
- 'X차 고속철도망'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신문49)
- 철도공단 신기술 제품 구매담당회(중도일보5)
- 고양 '능곡 삼성지하차도' 공사 재개(경기일보10)
- KTX요금 천원 인상...4년새 7200원 올라(경상일보6)
- 국토부, '유라시아고속철' 연계 용역 착수(매일경제27)
- 쫓지예산 논란일자 국토위 취소(매일경제1,6)
- 현대로템, 호남고속철 품질확보 총력전(문화일보18)
- "국가발주공사 철사업체 제한" (강원일보1)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파이낸셜뉴스23)
- 공공기관 올 상반기 9500명 채용(서울신문17)
- 공무원 기증하는 사회...하루 44명 징뭍(매일경제1)
- [사설]호남철2단계 노선결정은 여운 따라야(광남일보19)
- [사설]KTX, 서비스는 소홀한데 요금은 왜 자꾸 인상하냐(경상일보19)
- 전국 철도 폐선부지, 주민들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연합뉴스)
- 여의도 면적 6배 철도 유휴부지 무상 활용도 가능(연합뉴스)
- 중국 최북단 흑한지역서 고속철 시험운행 개시(머니투데이)

2015. 07. 20. (일)

- 여주~원주전철 조기 착공 청신호 (강원도민일보10)
- 강원 건설 '4조원 시장' 최대 호재 (강원도민일보6)
- 여섯달래 철도 飢기개발 영등대로, '교통지옥' 비상 (한국경제1)
- 영등대로 통합개발 혼선 ... 시민 불만에 15조 내수부양 기회 날릴 판 (한국경제5)
- 고용유발 31만명 · 경제효과 46조 넘을 듯 (한국경제5)
- 광주지하철 호남선KTX 개통 효과 2분기 수송인원 7만여명 늘어 (동아일보18D)
- 中 선양~단둥 내달 말 고속철 6시간여 거리 80분 만에 주파 (매일신문12)
- 남부내륙철도 3대 쟁점 논란 (경남신문3)
- 廈門은 담합 징계 ... 국회 건설사업 올스톱 위기 (매일경제2)
- "유라시아 대륙 잇는 서울~베를린 '광역철도' 만들자" (매일경제14)
- 포항시, KTX 개통 유공기관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제뉴스 외 2)
- KTX 8월부터 요금 인상... 울산시 "부담 가중" 반발 (국민일보)
-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필요성 제기 (중도일보)
- 이중역 인근 폐선부지 놀이문화 조성 탄력 (전라일보)
- [주간한국] 박근혜 대통령 '특명' 강원선 프로젝트 (데일리한국)
- 남아공 열차 사고 한달만에 또...300여명 부상 (이데일리)

경조사

강원본부 건설기술처 김범기 차장 묘모상
 □ 발 인 : 2015년 7월 7일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김현기 차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9일

영남본부 건설총괄처 최용문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7월 14일

시설장비사무소 장비차량부 배정혜 사원 조모상
 □ 발 인 : 2015년 7월 14일

기술본부 전자통신처 원홍선 차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16일

기술본부 전자통신처 원한희 차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17일